



일본 교통사고 사망자 11년째 감소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2012년 1월 4일 일본 경찰청은 2011년 동안 일본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,611명으로 2010년(4,863명)보다 252명(5.2%) 감소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가 11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함.
-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0년 1만 6,765명에서 정점을 찍은 뒤 증감을 되풀이하다 2001년부터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57년 만에 4,000명대로 감소함.
- 2011년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9만 907건이며, 부상자 수는 85만 2,094명임.
- 일본 경찰청은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 증가와 속도위반 등 고위험성 교통질서 위반행위 감소가 사망자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함.

〈그림 1〉 일본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추이



- 일본의 교통사고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이상 많지만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적음.
- 2010년 기준 일본은 교통사고가 72만 4,811건 발생하여 4,863명이 사망하고 89만 4,281명이 부상한 반면, 우리나라는 22만 6,878건 사고로 5,505명이 사망하고 35만 2,458명이 부상함.

- 2011년 일본의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7.0% 감소한 267건으로 1990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음.
-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9.1%로 동 비율이 최초로 50%를 상회한 2010년에서 다시 하락함.
-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이치현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고, 도쿄 215명, 사이타마 207명 순으로 나타남.
- 반면,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전년대비 16.3%, 16.1% 감소하였으며, 이와테현도 1.5% 감소함.

(니혼게이자이신문, 시사통신, 요미우리신문, NHK, 마이니치신문, 1/3 뉴스 종합)